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화순군,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선제적 대응 나선다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설치 체계적 관리



화순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전문 치매관리 및 치료 원년 토대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BTI(임대형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관리 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의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치매안심요양병원 48병상 설치 등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병원의 명칭을 화순군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해 진료 분야를 노인성질환 치료에 치매 분야를 추가

했다.

개원 6주년을 맞은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 82명과 192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병원에 위탁·운영 중이다.

진료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등 7개 과목이며 특히, 재활의학과의 의료장비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재활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진료 분야로 추가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의사, 간호사가 상주해 전문적으로 접종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동 설치와 치매 진료 및 치료 장비를 보강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또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

운영단을 구성하고 치매 전문 인력 5명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18일 화순보건소 내에 화순군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 운영에 들어갔다.

치매안심센터는 화순을 삼천리 일원에 오는 7월중 완공 예정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업무를 확대 추진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 치매환자 등록 관리사업, 지역 사회지원 강화사업 등 치매 경증환자부터 고위험군 확진 이후까지 예방·관리·처방·돌봄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치매 증상이 없어도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 센터에서 조기검진과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고 치매약화 방지와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과 화순군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 군민 누구나 치매에 인식할 수 있도록 전문 치매관리와 치료 원년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충곤 군수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 치매안심센터(1층)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층) 복합건물을 신축해 정식 개소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치매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첫삽’

총 226억 원 사업비 투입

순천시는 해룡산단에 국내 최초로 고무에 특화된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공사를 1월초 착공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비 100억 원과 민자 4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12월까지 부지면적 8,824㎡, 건축면적 5,358㎡으로 연구동과 고

무배합동으로 이루어지며, 2019년 12월까지 관련 장비 47종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국내 R&D 지원 및 시험, 평가 기관 중 최초로 고무에 특화된 인프리를 보유한 기관으로, 특히 자동차, 우주·항공, 선박 등 수송기기용 고강도, 고내열, 극온은 첨단 고무소재를 정밀 평가할 수 있는 특화된 장비를 구축한다.

순천시와 전남도,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은 소재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관 기업 지원 및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되면 세계 시장 변화에 빨리 대응하여 관련 기업 매출 1,000억 원 증대와 일자리 26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올해 농산물마케팅 관련 15개 사업 신청 받아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광양시는 올해 추진하는 농산물 마케팅 소관 15개 사업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사업대상은 마케팅 전략, 농식품가공, 생활 지원 등 총 3개 분야 15개 사업이며, 총 5억 1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마케팅 전략 부문으로는 농식품 TV홈쇼핑방송판매 지원사업, 생활 고객 확보 쌀 택배비 지원사업, 브랜드 홍보용 샘플팔 제작 지원사업

업, 농식품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농식품 가공 분야로는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사업, 지역농산물 이용 명물먹거리 상품화 사업, 유기기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농·특산물 해외판촉 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생활 지원으로는 농촌지역지원 상품화 사업, 매실수이용 개발 제품 상품화 사업, 고령농업인 수확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보급, 농촌체험농장 육성 사업, 작별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 6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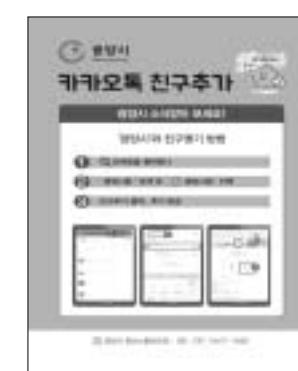
업 선도농가육성 사업사업, 6차산업 유형별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등 7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농산물마케팅과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체에 대해 현지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오는 3월 중에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실시간 양방향 소통채널 ‘광양시청’ 카카오톡 개설



광양시가 지난 5일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SNS인 카카오톡에 출시한 광양시 SNS 카카오톡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과는 다른 메신저형 채널의 장점을 살려 1:1 카톡방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시청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지 않아도 1:1 대화로 편리하게 묻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풋살·축구·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행동요령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다.

시는 카카오톡을 광양시 최고 모바일 소통 채널로 육성하기 위해 문

화관광, 정책, 미담사례 등을 감성적인 사진과 동영상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광양시청 카카오톡의 소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실행 후 ‘광양시청’을 검색해 친구 추가하면 된다.

김영관 홍보소통담당관은 “카카오톡은 타 SNS에 비해 높은 접근성과 간편한 이용 방법으로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사용하는 소통채널이다”며, “시민들에게 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찾기가는 현장 게릴라 홍보를 통해 광양시 최고 소통채널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시민 자전거교실’ 운영

3월부터 11월까지…교통법규 등 이론·실기 교육



순천시는 생활형 자전거를 배우려는 학생, 가정주부 등이 늘어남에 따라 2018 시민 자전거교실을 개설한다.

시민자전거 교실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7월, 8월은 우기로 제외) 매월 30명씩 신청을 받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교통법규 등 이

론과 실기를 교육하게 된다.

수강신청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순천시민으로 수강료는 무료이며 접수방법은 전화접수(061-749-6364, 4880) 또는 인터넷접수(온누리 공영 자전거 홈페이지 bike.suncheon.go.kr)로 하면 된다.

또, 찾기가는 자전거교실도 운영한다.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2월중 교육을 희망하는 18개교를 선정하여 자전거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 어린이 자전거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하길호 도로과장은 “시민 자전거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2.7%까지 끌어 올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